

대강절 네번째 / 성탄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4TH SUNDAY OF ADVENT
CHRISTMAS SUNDAY

주후 2021년 12월 19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26 장 “천사 찬송하기를” (새 126)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57 번 성탄절 (Christmas)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문일호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일서(1 John)4:9-16	김숙희 집사
찬 양 Anthem	“성탄 케롤”	찬양대
설 교 Sermon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God Sent His Son)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유아 세례 Infant Baptism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별연주: “하루의 은혜” - 박준 교우)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115 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새 115)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화평이 되시며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아지기 보다는 더 높아지려고 했고,

주님의 화평을 가져오기 보다는 분열과 갈등을 야기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거짓과 교만과 미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랑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닮은 참된 화해와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2:1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한글개역 **요일4:10**)

“This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as an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NIV **1 John 4:10**)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2/19 (주일)	12/20 (월)	12/21 (화)	12/22 (수)	12/23 (목)	12/24 (금)	12/25 (토)
	대하22,23	대하24	대하25	대하26	대하27,28	대하29	대하30
본문	계10	계11	계12	계13	계14	계15	계16
	속6	속7	속8	속9	속10	속11	속12-13:1
	요9	요10	요11	요12	요13	요14	요15

성/탄/전/야 촛/불/예/배 토/요/ 새/벽/기/도/회

성탄전야 촛불예배 (12/24 오후7:30)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들” (눅28-20)
토요 새벽기도회 (12/25 오전6:30)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요1:1-14)

지난 주일(12/12)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3)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 20:24-31)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유독)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흥분해 하고 있는데, 도마는 냉소적으로 반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을 만져보며, 또한 예수님 옆구리에 자신의 손을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단언하기에 이릅니다. 도마의 이 말에 영감을 얻어서, 그린 그림 중에, 카라바조 (Michelangelo Merisi Caravaggio, 1602)가 그린 “The Incredulity of Saint Thomas (도마의 불신)”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특이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도마의 손을 잡으셔서,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지도록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했던 도마는 (비로소)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즉, 로마 제국 안에 황제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주/주님(Lord)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 고백은 곧 자신의 목숨을 거는 (그런) 결연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롬 10:9)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대가를 치루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오직 주님께만 충성과 헌신을 다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분만을 높여드리며, 그 분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